

**'26년 AI 예산은 10.1조원으로 국가AI전략 위원회, 과학기술혁신본부,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분류하였습니다.**

### <보도 내용>

- 2025.11.7. 매일경제는 ‘10조 AI 예산이라더니 실체는 7조7천억에 그쳐’ 기사에서,
  - ‘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별 부처 합산 AI 예산은 7조 7,551억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’고 하였습니다.

### <정부 입장>

-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AI 관련 사업 리스트를 바탕으로 국가 AI전략 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, 전문기관(KISTEP) 등과 협의하여, AI 사업을 분류하였으나,
  - AI예산 집계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AI개발을 위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AI반도체 개발, AI활용 신약개발 등 AI와 관련성이 높은 R&D 분야를 AI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(약 1.7조원),
  - 국민성장펀드의 경우, 정부는 ‘26년 정부 출자액 1조원중 AI분야 투자목표인 20%(2,000억원)를 AI예산으로 분류하였으나, 국회예정처는 이를 제외하였습니다.
  - 또한, 국회예산정책처의 개별적인 AI예산 분류·제출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, 실무검증 절차의 미비로 인해 누락(0.5조)된 것으로 보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5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한결 (gksruf14@korea.kr)